

7 장 어둠 속의 빛

THESIS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야기들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빛은 고대의 원형적인 상징이며,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중심으로서, 크리스마스 축하의 중심이다. 밤이 가장 긴 절기에, 그것도 한밤중에, 어둠이 가장 깊은 시간에 태어난 예수야말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서, 세상의 빛이다.

PROBLEM

가장 깊은 어둠의 때, 동지의 한밤중 예수의 탄생은 역사적 시간이나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시간, 은유적인 시간, 신성한 시간, 상징적 시간이다. 어둠과 빛의 대조는 성서의 많은 대조들과 상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ARGUMENTATION

원형적 상징으로서의 빛

- 빛은 원형(archetype)적 상징이다. – 태초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각인된 이미지, 형태(type)
- 빛(어둠의 반대)은 종교 전통의 중심 – 밤과 어둠, 겨울, 비탄, 애도 등의 경험은 빛과 어둠에 대한 연상들이 구약 성서와 초기 기독교 안에 반영

구약성서 안에서의 빛

- 창조 첫날 빛을 창조 – 첫날의 빛은 원초적인 빛, 즉 해와 달과 별들 이전에 존재했던 빛

-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야곱, 출애굽의 빛 – 하나님의 임재, 신성함이 인접해 있는 것을 상징
- 이사야의 빛 – 첫 부분부터 빛이 오는 것을 이상적인 왕이 도래하는 것과 연결짓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빛나는 임재,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

신약성서 안에서의 빛

- 빛이 은유적으로 풍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도 계속되고, 그 가운데 이 원형적인 은유가 중심적인 역할.
- 바울의 편지들 속에 나타난 빛의 이미지 – 부활한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경험한 바울에게 복음은 빛이며, 빛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빛나는 임재, 그리스도의 광명)
- 요한복음에서의 빛의 이미지 – 예수를 서술하는 데 빛과 어둠이 핵심적. 예수가 오신 것은 성육신으로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즉, 예수 = 세상의 빛
-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빛의 이미지 – 땅에서의 생명에 대한 비전으로 새 예루살렘은 빛의 도시이며, 그 빛은 하나님과 예수의 영광 (빛나는 임재)
-
- 구약성서와 초기 기독교 안에 나오는 빛의 이미지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전해진 맥락의 한 부분으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초대 기독교의 맥락 속에서 빛의 이미지들로 자신들의 복음서를 채움

마태의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 나오는 빛의 이미지

- 베들레헴의 별 – 전문학적인 현상에 관한 진술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진술. 즉, 예수의 탄생은 빛의 도래로서, 이방인 현자들을 그 빛으로 인도한 것
- 예수의 탄생은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것.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끄려고 한다 (헤롯 왕의 음모)
- 이방 나라들 출신의 현자들이 빛에 이끌려와서 예수에게 경의를 표함 – 예수는 많은 민족들의 빛
- 이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참된 이야기가 아니라도, 비유로서 참된 이야기 – 기독교인의 고백

- 예수는 어둠 속에 비치는 빛. 이 세상의 헤롯과 같은 왕들은 그 빛을 끄려고 함. 그러나 예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고 있음

누가의 예수 탄생 이야기 속에 나오는 빛의 이미지

- 사가랴의 찬가 (The Benedictus) –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예수의 탄생이 “해를 높이 뜨게” 하는 새벽으로서 어둠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사건. 그 결과는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
- 시므온의 찬가 –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빛과 영광
- 한밤중의 하늘에 나타난 영광 – 천사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에는 빛, 광채, 밝음, 영광, 계시로 가득.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처음 전해들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 기쁜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과 멀리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다. 예수의 메시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으며,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는 것. 즉, 목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예수의 메시지를 미리 보여준 것.

로마 : 아폴로인가 쾰톤인가?

- 세 번째 탄생 이야기 - 1 세기 말 밋모섬 요한이 경험한 환상을 기록.
- 로마 제국신학에 대한 정면 도전 – 아폴로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의 출생 이야기를 흥내내며 뒤집어 엎음.
- 예수가 세상의 참된 빛, 아폴로이며, 로마와 그 제국은 빛을 파괴하려 하고 세상을 카오스 속에 던져 넣는 태초의 뱀 쾰톤, 짐승이다.
- 빛이라는 원형적 이미지의 풍부한 사용 – 빛은 구원과 연관

빛 : 개인적이며 정치적인 차원

- 어둠 속 빛의 이미지는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 기독교 전통에 핵심적인 것이며, 다른 성서의 언어들처럼 빛의 이미지 역시 개인적이며 동시에 정치적.

- 빛과 어둠 뿐 아니라, 예속과 해방, 유배와 귀환, 불의와 정의, 폭력과 평화, 거짓과 진리, 죽음과 생명 과 같은 대조..
- 예수의 탄생 이야기들에서도 개인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것은 그 의미의 절반을 놓치는 것

MEDITATION

- 원형적 상징(Archetypal symbol)으로서 빛의 이해와 예수 탄생일에 관한 이해에 관하여
- 개인적이며 동시에 정치적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혹은 개인적인 의미만 생각하는 것은 그 의미의 절반을 놓치는 것이라는 말에 관하여